

새로운 강화 모임 지침이 발표되다

2005년 8월, 제일회장단은 상호부조회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강화 모임을 분기별로 갖고, 강화 활동을 자매들의 필요사항 또는 관심사에 따라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변경은 각각의 단위 조직에게 보다 큰 유연성을 부여하고, 또한 가정 및 가족을 보다 강조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 및 가사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제일회장단은 언급했다. “강화 프로그램은 자매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배우며 고양되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다.”

제일회장단은 강화 모임 및 활동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필요사항과 관심사를 알고, 신권 지도자와 상의하고, 활동을 계획할 때 기도하는 마음과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자매들이 적절히 참여하고 있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은 모든 자매들이 함께 만나기 위한 것이다. 제일회장단은 각 와드나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강화 모임을 일년에 네 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 모임은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을 제외한 주중에 가져야 한다. 네 번의 모임 중 한 번은 상호부조회의 조직일인 1842년 3월 17일을 기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스테이크나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일년에 한두 번의 추가 모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들 모임 중 한 번은 상호부조회 총회 연례 방송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은 비슷한 상황, 필요사항, 또는 관심사를 갖고 있는 자매들을 위한 것이다. 강화 활동은 강화 모임보다는 보다 유연하여, 우정증진 및 지원의 방편 역할을 한다. “이 활동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흥미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어 자매들이 가정, 가족 및 개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일회장단은 언급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가정, 가족, 다른 곳에서 갖는 책무들



이제 각 단위 조직이 자체의 필요에 따라 강화 활동의 수를 결정하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활동을 유연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및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교회 지침서, 제 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201~202쪽*에 나와 있다. ■

마음에 영향을 주는 시청각 자료

월터 콜리, 교회 잡지

교회의 시청각부는 주님의 음성을 온 백성에게 계속해서 널리 전하는 음향과 영상을 기록한다.(교리와 성약 1:2 참조) 현재의 비디오, 사진, 방송,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시청각부는 교회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한다.

“기술은 교회가 계속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말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그분의 목적을 진척시키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신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1~22쪽)

시청각부에게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청각부의 작업을 보는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복음 원리를 알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발전

필리핀에서 레이먼드 루이스 감독의

와드 회원들은 시청각부에서 제작한 지역 훈련 비디오를 시청한 뒤에 초등학교를 경건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루이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초등학교 훈련 비디오를 보여준 다음 일요일에 초등학교 어린이를 관찰하려고 감독실을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공과 교실로 들어 가려고 한 명씩 경건하게 줄서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들어갈 때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 옆에 서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비디오에서 본 내용들을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시청각부는 훈련 자료를 준비하고 배부하는 일에서 지역 회장단을 돕는다. 필리핀에서 시청각부는 세 보조 조직 훈련 비디오 세트를 제작하기 위해 지역 회장단과 함께 일했다. 유럽 동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청각부는 지역 회장단이 화상 회의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하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시청각부는 또한 회원들에게 지역 집 회소를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DVD를 제작했다. DVD에는 *Hermano Olympio*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첨부되어 있다.

시청각부는 또한 교회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성 더빙 작업을 지원한다. 언어



청년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시청각부에 의해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되는 본부 청년 총회를 위해 모여있다.

음성 더빙을 필요로 하는 교회 제작물들은 때때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된다.

예를 들어, 일본, 핀란드, 태국, 브라질,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튜디오는 이들 국가들에 있는 성우들의 음성 녹음을 위해 사용된다.

교회 시청각부와 다른 창작 스튜디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전해지는 메시지에 있다. 모든 시청각 제작물에서 그 메시지는 다른 교회 부서 또는 신권 지도자들에게서 나온다. 시청각부의 역할은 그 메시지의 적절한 모양과 느낌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DVD

교회가 세계에서 성장하고 널리 퍼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통신도 가능하게 되었다.

DVD 및 인터넷의 발명으로 많은 언어로 된 시청각 자료를 교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다.

한 장의 DVD는 같은 연차 대회에 대

해 제작된 수십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대치할 수 있다.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오직 한 가지 언어로만 더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텔레비전 포맷에 따라 적절하게 맞추어야 했다.

한 장의 DVD에는 최대 26개의 언어 번역을 담을 수 있다. DVD 포맷은 또한 새로운 국제 비디오 표준으로, 국제적인 텔레비전 표준에 맞추어야 할 필요를 없애주었다. DVD 재생기가 전세계적으로 교회 집회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는 현재 기존의 비디오를 DVD로 변환하고 있다.

DVD 기술과 더불어, 인터넷 또한 방송과 양방향 훈련을 전달할 수 있는 고기능 양방향 매체로 판명되고 있다.

최근에 시청각부는 청년 및 초등회 보조 조직을 위해 양방향 온라인 훈련 공과를 디자인하는 일 을 도 왔다 . www.lds.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들 공과들은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양방향 훈련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시청각부의 매체 디자인 및 제작 부서 책임자인 데이비드 닐슨은 시청각 자료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인터넷과 DVD를

사용하는 정도가 장래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4월 및 10월 연차 대회는 시청각부가 관여하는 제작물 중에서 가장 널리 시청되는 두 가지이다. 연차 대회는 생방송을 통해 97 퍼센트의 교회 회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나머지 3 퍼센트의 회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 DVD로 대회 실황을 볼 수 있다.

연차 대회를 위한 준비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카메라와 텔레프롬프터 기사, 음향 담당자, 프로듀서, 사진사들

은 수십 대의 카메라, 여러 상황실, 음향 시스템, 그리고 통역과 미국식 수화, 대회 및 기타 방송용 자막 처리를 위한 시설의 준비를 돕는 시청각 팀의 일부에 불과하다.

연차 대회 이외에도, 시청각부는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원격 스테이크 대회, 전세계 훈련 모임, 상호부조회 및 청년 총회, 성전 헌납식을 방송한다.

영화

시청각부의 가장 유명한 제작물은 *The Testaments of One Fold and One Shepherd*와 같은 교회 영화이다. 교회



배우들이 조셉 스미스와 회복에 관한 새로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 역을 연기하고 있다.

영화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제작되며,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교회 영화 스튜디오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스튜디오는 브리검 영 대학교 프로보 캠퍼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 채의 시멘트 블록 건물, 그리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웰 케이 휘트니 상점의 복원 가옥을 포함하여 1800년대 초기 스타일을 복원한 건물 세트가 약 30,000 평 넓이의 산림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할리우드 스튜디오와는 달리 교회 스튜디오는 그 장비를 임대하지 않는다. 스튜디오 시설에는 금속 작업장, 목공 작업장, 여러 채의 음향 녹음 스튜디오, 의상 창고 지역이 포함된다. 영화의 배경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Legacy 및 *The Testaments of One Fold and One Shepherd*와 같은 장편 교회 영화의 상당 부분이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 곧 공개 예정인 조셉 스미스에 관한 교회 영화의 여러 장면 또한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 모든 교회 영화의 편집은 전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연차 대회의 모임 사이에 나오는 짧은 비디오 장면들 또한 이 곳에서 제작된다.

엔지니어링

조셉 스미스에 관한 새로운 영화가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개봉될 때, 시청각부는 영화 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 시스템도 제작할 예정이다.

시청각부의 엔지니어링 부서는 시청각부의 제작물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만든다. 때때로 이 과정에는 기존의 기술을 수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때로는 특이한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특허를 내는 일도 포함된다.

교회는 엔지니어링 부서가 만든 시스템에 대한 여러 건의 특허를 현재 갖고 있다. 엔지니어링 부서는 성전 의식 발표, 교회 사적지 전시물, 방문자 센터 전시물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새로운 방문자 센터 전시물인 *God's Plan*은 세 곳의 방문자 센터에서 현재 상영 중인 시청각 제작물이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전시물은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소규모 방문객들을 이끄는 자매 선교사가 원격 조종을 통해 버튼을 눌러 조명을 어둡게 하고 영화를 시작할 수 있다.

가족에 관한 메시지가 서라운드 사운드 속에서 플라즈마 스크린 텔레비전에 상영된다. 방문자들은 집처럼 생긴 구조물을 마주한 벤치에서 관람한다. 전시물은 다양한 언어로 상영된다.

엔지니어링 부서는 *God's Plan* 전시물에 필요한 기술의 많은 부분을 디자인했는데, 이는 그런 기술들을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방문자 센터에는 이 전시물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는 성전 디자인이 시청각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 설계자들과 밀접하게 일하는 것이 포함된다. 시청각 엔지니어들은 또한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시청각 설비를 설치한다. 엔지니어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재평가하여 성전 시청각 설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단순화하고, 지역의 성전 스태프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모니터하고, 그 능력을 평가하여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것들을 주의깊게 채택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시청각부의 엔지니어링 부서 책임자인 린 헤드필드는 말했다.

시청각부의 볼거리와 음향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간증할 때,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을]”(교리와 성약 1:2) 것이라는 주님 예언의 성취를 시청각부가 돕는 것이다. ■

아프리카에 조직된 두 개의 새로운 선교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아프리카에 두 개의 새로운 선교부를 조직한다고 발표했다.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와 우간다 캄팔라 선교부가 2005년 7월에 조직되었다. 이 두 새로운 선교부로 인해 전세계의 선교부 수는 341개가 되었다.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는 과거에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 선교부에서 담당하던 국가들에서 만들어졌다. 새 선교부는 토고, 베냉,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가나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다.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에는 가나 케이프코스트, 가나 쿠마시, 가나 타코라디 스테이크 그리고 가나 아신포스 및 가나 스웨드루 지방부에 속한 13,590 명의 회원이 포함된다. 2005년 7월 1일부터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를 시작하도록 올해 초에 부름을 받았던 린제이 토마스 덜 회장이 새로운 선교부의 회장으로 재지명되었다.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장 선교부의 새로운 회장은 노베르트 칼로고 오운레우 형제이다. 이 선교부는 현재 아이보리코스트만을 담당하며, 아비장과 아보보 스테이크에 속한 9,149 명의 교회 회원을 포함한다.

또한 새로운 선교부의 조직은 가나 아크라 선교부의 경계에도 영향을 준다. 가나 아크라 선교부는 현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가나의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재조정된 경계에는 가나 아크라 크

리스턴보그와 가나 아크라 라테비오코르 시에,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스테이크, 그리고 가나 아보모수, 가나 코포리두아, 시에라리온 보 지방부,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지방부에 속한 19,151명의 회원을 포함한다.

우간다 캄팔라 선교부

우간다 캄팔라 선교부는 우간다와 에티오피아를 담당한다. 랄프 엘 듀크 형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선교부에는 우간다 진자 및 우간다 캄팔라 지방부에 속한 3,959 명의 회원이 있다.

과거에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하던 케냐 나이로비 선교부는 이제 케냐와 탄자니아를 담당하게 된다. 선교부에는 케냐 나이로비 스테이크와 케냐 치유루 지방부에 속한 6,099 명의 회원이 포함된다. ■

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한결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 교회, 즉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한결같이 우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선교사 봉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21쪽)

이러닝은 회원들이 부름과 관련된 기술과 책임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외에도, 온라인 훈련에는 양방향이고 멀리까지 미치며 유연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장점들이 있다.

양방향

이러닝 교육은 양방향 슬라이드쇼 형태로 주어진다. 이런 교육에는 비디오 및 오디오 클립, 적용 질문, 연습 시나리오, 양방향 대화, 훈련 주제와 관련된 제언이 담긴 표와 차트를 포함한다.

최근에 초등회와 청년 보조 조직을 위해 발표된 훈련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양방향 기술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교회 시청각부의 이러닝 관리자인 스티브 브림리는 이런 기술들이 여러 과정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교육 내내 사용자들의 관심을 이끄는 데

양방향 온라인 훈련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닝(e-learning): 교회 회원을 한결같이 훈련시킴

월터 콜리, 교회 잡지

이러닝 기술이 교회의 당면 과제들 중 하나를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교회 회원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훈련시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2002년 9월에 제일회장단은 위성을 통한 연례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에서 교회의 교리와 원리를 지역 차원에 적용하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 1회 전세



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침서와 다른 자료들을 읽는 것 이외에도, 회원들은 그들의 부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 교회 감사 양식의 기재법, 개인 발전 기록부에 관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법, 음악 지휘 방법 등을 보여주는 양방향 교육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단순히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교회 회원 및 통계 기록부에서 교육 기획자로 있는 브랜든 브라운 형제는 말했다.

교육에 있어서 시각적 접근은 교회 교육 기획자들이 문화, 경험, 학습 스타일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회원들에게 개념을 가르칠 때 특히 유용하다.

교회 음악 사이트와 www.providentliving.org와 같은, 교회에서 초기에 사용한 이러닝이 특정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제공했음이 판명되었다.

“이러닝이 훈련의 확실한 한 형태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음을 이런 사이트들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교회 시창각부의 미디어 디자인 및 제작 부서 책임자인 데이비드 닐슨 형제는 말했다.

멀리까지 미침

새로운 기술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회원들이 이러닝을 접하는 것이 가



회원들은 이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훈련을 접할 수 있다.

능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닝 과정은 www.lds.org에 게시되어 있어, 회원들은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가족 역사 센터가 있는 집회소에서는 인터넷 접속 또한 가능하다. 약 4,400개소의 가족 역사 센터가 전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

유연성

이러닝의 장점 중 하나는 유연성이다. 이러닝에서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닝이 지닌 유연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일정에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닐슨 형제는 말했다.

훈련 교육은 평균적으로 15분 동안 계속된다. 회원들은 각 교육을 원하는 횟수 만큼 볼 수 있다.

또한 인쇄된 지침서와 같은 훈련 형태

와는 달리, 전자 훈련 교육은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다. 이러닝에서의 업데이트는 현재 시행되는 교회 절차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총관리 역원이 주는 새로운 비디오 클립 또는 오디오 지침을 슬라이드쇼에 추가하여 정책이나 절차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닝 교육은 또한 필요가 발생하면 번역될 수도 있다. 교회 서기와 감사자를 위한 온라인 훈련이 현재 14개국어로 번역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첫번째 달 동안에 번역된 훈련 교육이 서기 및 감사자 훈련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육에 속해 있었다.

결과를 얻음

교육물 가운데 많은 것들이, 회원들이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서 받을 수 일대일 개별지도 방식을 모방하고 있지만, 이러닝이 지역의 와드 및 지부에서 제공되는 개인적인 교육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닐슨 형제는 말했다.

“이러닝이 총관리 역원이나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주는 생생한 가르침을 결코 대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닐슨 형제는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이 집이나 교회 건물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러닝이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과 온라인 모두에서 훈련은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회원들의 일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헝클리 회장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책임을 맡기신 이 일보다 더 긴박한 일은 없습니다.”(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

일, 21쪽) 기존의 온라인 훈련을 lds.org 의 ‘Serving in the Church’ 편에서 또 는 여러분의 언어로 된 lds.org에서 접속 할 수 있다. ■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펭귄을 위해 옷을 만들다

뉴스우스 웨일즈의 코프하버 지부에 속한 일단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필립 섬에 있는 쇠푸른이펭귄(fairy penguin)의 도움 요청에 응하여 뜨개바늘을 꺼냈다.

“이 지역에서의 자연 보존 운동에는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펭귄의 재활을 위해 털실 스웨터가 필요합니다. 석유 유출로 매년 많은 펭귄들이 죽는데, 기름이 펭귄의 날개에 해를 끼쳐 중독되고 또한 익사하기가 쉽습니다.”라고 코프하버 지부의 매리온 브라운 형제는 말했다.

호주 본토와 태즈메니아 섬을 갈라놓은 배스 해협은 주요 항해로이다. 가끔 일어나는 해상 사고가 쇠푸른이펭귄(fairy penguin)-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펭귄 스웨터는 태즈메니아 주변의 주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석유 유출 대응 키트에 보관된다. 석유 유출 발생시에 어린 펭귄들은 대체로 너무 아파서 물이나 연한 세제로도 닦아줄 수가 없고, 세계 문지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대신에 구조자들은 석유로 뒤범벅이 된 새를 양모 스웨터 속으로 살살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 새들이 부리로 날개를 다듬고, 나아가서는 새들이 필요한 기력을 얻을 때 석유에 포함된 독성 물질을 삼키는 것을 막아준다. 스웨터는 또한 펭귄의 생존을 위한 단열과 방수에 필요한(하지만 세정시에 제거된) 생체 기름을 펭귄이 다시 만들어낼 때까지 그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지역 사회를 강화시킴

국 제도에서의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여러 주에 걸쳐 닥친 다섯 개의 사이클론은 국 제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들 뿐만 아니라 넓게는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주섬인 라로통가와 인근의 섬들 모두에서 가옥과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가 있었지만 회원들은 질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

교회는 푸카푸카에 식품과 물을 공급했다. 건축 자재와 회원들을 동원하여 아이투타키에서 한 채의 가옥 지붕을 보수하고, 두 채의 다른 가옥의 완전 재건축을 도왔다. 라로통가에서는 많은 가옥들이 교회가 공급한 자재와 신권 노력을 통해 수리되었다.

이 외에도 교회는 휠체어와 보행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라로통가에 있는 테우키오우 학교에 대형 특수 패드의 설치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종교 교육원이 주말 봉사를 통해 기념하다

대학교 학기 사이의 방학 동안, 해밀턴의 세 개 스테이크와 독신 성인 와드는 종교 교육원의 다음 학기 등록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교원 주간의 주제는 “조셉

스미스와 젊은이-가치관에 충실하자”였다. 함께 어울려 서로를 만나는 개회 활동 후에 봉사 활동이 이어졌다.

최우선 프로젝트가 템플뷰 커뮤니티 바로 서쪽의 해몬즈 부쉬에서 있었 는데, 그곳은 로저 해몬 장로와 자매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곳이었다. 독신 성인들은 종교원 동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토종 나무를 심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해밀턴시티 평의회를 위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서 독신 성인들이 템플뷰 스테이크의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와이카토 병원의 어린이 병동을 위한 켈트 제작과 보드라운 장난감 기증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독신 성인들은 이 활동 동안에 29개의 켈트와 네 자루 분의 촉감이 보드라운 장난감을 병원에 기증했다.

장난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에이미 하워드는 최근에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던 일로 인해 어린 환자들에게 뭔가 신나는 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고, 퇴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하나 골라 집으로 갖고 갈 수가 있다.

2006년 1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
이 리아호나 2006년 1
월호에 게재된 함께 나
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추가 제언들이다. 이러한 제언
에 부합되는 공과, 교육 및 활동을 위해,
이번 호의 어린이란 4~5쪽에 나오는 “경
전에 있는 약속들”을 참조한다.

1. 다음 성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하나
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들
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개념을 강화한다.
그림들을 임의의 순서로 방 안에 놓는다.
여러분이 성구를 읽을 때, 어린이들이 어
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듣게 한다. 주님
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었거나 이를
것인지를 토론한다. 한 어린이에게 해당
되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것을 교실 앞에
놓게 한다. 노래나 찬송가를 하나 부른
다. 다음 성구와 그림과 노래를 갖고 반
복한다. (1) 니파이후서 25:21(기록들이
보존될 것임), 복음 그림 패키지 406(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음) (2) 아브라함서
2:9~11(신권이 모든 나라에 전해짐),
복음 그림 패키지 408(멜기세덱 신권의 회
복) (3) 니파이전서 2:20(니파이가 순종
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임), 복
음 그림 패키지 304(약속의 땅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일행) (4) 요한복음
14:26(성신이 우리를 위로할 것임), 복
음 그림 패키지 602(성신의 은사) (5) 교리와
성약 89:18~20(지혜의 말씀의 축
복), 복음 그림 패키지 114(왕의 고기와 술
을 거절하는 다니엘) (6) 교리와 성약
109:13(성전의 축복), 복음 그림 패키지
502(솔트레이크 성전) 또는 여러분 지역
에 있는 성전 사진.

2. 성취된 약속에 관한 성구에 나온

예를 활용하여 교리와 성약 82편 10절
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한다. 어린이들에
게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을 펼치게 하
고,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명확한 행동
을 요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님이 요
청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분은 약
속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신다. 성구를 표
시하고, 토론하고 암기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70~171쪽) 어린이들을
대여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콩
주머니 하나를 준다. 여러분이 노래 또는
찬송가를 부를 때, 각 그룹에 있는 어린
이들이 그룹 중에서 콩 주머니를 던지게
한다. 음악이 끝나면, 각 그룹에서 콩 주
머니를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주님의 약
속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이번 주에 그
어린이가 행할 일을 한 가지 말하게 한
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게임을 계
속한다.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훌륭한
약속에 관해 간증한다. “난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3쪽)를 부른다.

3. 노래 발표: “경전의 힘”을 부른
다.(2006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어린이
성찬식 발표를 위한 개요 참조) 구주의
그림을 치켜들고,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한다. “내 구주 예수 닮기 원하기 때문에
주 경전 매일 읽고 따라 생활하네
(Because I want to be like the
Savior, and I can, I’m
reading His instructions, I’m
following His plan.)”를 부른다.
여러분의 경전을 치켜들고, 어디
서 그분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
고, 또 어디서 그분의 계획을 찾
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도우미
들이 그림과 경전을 들고 있는

동안 그 가사들을 다시 부른다. 어린이들
에게 “그 말씀 권세 내게 임하기 원하니
(His word will give to me)” “그 말씀”
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한다. 그
런 다음 두 손으로 여러분의 경전을 치켜
들고서 가사 전체를 노래한다. 그분의 말
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
부분까지 노래하고, 여러분이 “힘”이라는
말을 노래할 때, 두 손으로 여러분의 경
전을 치켜든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
한다. “나는 생활 속에서 경전의 힘을 원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내게 말해주십
시오.” 다음 가사를 노래한다. “주 원하
시는 대로 살아 가리라(I’m changing
how I’ll live, I’m changing what I’ll
be.)” 답을 구한다. 그런 다음 그 줄을 함
께 노래한다. 가사 전체를 선창하면서 어
린이들을 이끈다. 여러분이 합창 부분을
노래할 때 “힘”이란 낱말을 어린이들이
몇 번이나 듣는지를 손가락으로 세게 한
다. 합창 부분을 여러분과 교대로 노래한
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경
전 권세”라고 노래하면, 여러분은 “나를
지키시”라고 노래한다. 그런 다음 초등회
어린이의 반은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도록
하여, 나머지 어린이들과 교대로 노래한
다. 경전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
다. ■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2006년 1월 1일



테이크 회장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여러분, 부부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했거나 은퇴 연령에 가까운 부부들에게 먼저 다가가 부부 선교 사로서 봉사할 필요성과 봉사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젊은 부부들이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교회의 힘과 성장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2005년은 한국 교회에 놀라운 해였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한 한국 교회 50주년 기념 행사는 특별하고 주목할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념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귀환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의 한국어 명칭에 대한 선지자의 지시를 받았고, 새로 번역된 경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욱 성장하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가족이, 또한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받는 축복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송평중 회장님과 양계영 자매님이 부산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힘과 성숙도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모든 선교부 회장님들과 그들의 부인, 그리고 선교사들의 봉사에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는 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배려심이 깊고 인정많은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이 주님의 종들은 고대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부름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성역을 베푸는 지도자입니다. (제3니파이 26:19 참조) 이들은 우리 자녀들과 교회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합니다. (교리와 성약 81:5)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지 않은 모든 청년들과 청년 독신 형제들이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을 만나 선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여러분, 아직 봉사하지 않은 분들께 손을 내밀어 그 분들이 합당하게 봉사할 준비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이 선교 사업에 대한 의무감을 젊은 형제들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나이이며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지속적인 소망을 지니신 모든 자매님들은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회장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셨거나 은퇴 연령에 가까운 모든 활동적인 부부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에 좋은 때가 아닌지 고려해 보시도록 권유합니다. 부부 선교 사업은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부름받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본부, 성전, 교회 교육 기구, 그 외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감독님이나 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에 성전들이 더 지어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참석하여 그로 인해 오는 축복을 받고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과 희생을 하려는 더욱 큰 소망이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있으며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힝클리 회장님께서 주신 권고를 통해 어쩌면 한국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물문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물문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과 이 위대한 경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우리는 강화되고 우리 가족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물문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전해 드리며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이 놀라운 책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힝클리 회장님께서 “계속 읽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역 회장단은 한국에서의 사업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사업을 충실히 기쁘게 행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 복음은 참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간증 드립니다. 이 사업의 놀라운 시기에 함께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주님의 가장 높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윌리엄 알 위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고원용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감리하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새로 부름받았다. 위성 중계되었던 스테이크 대회와 각 지역의 노변의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의 만남을 시작한 회장단은 윌리엄 알 워커 회장과 제1보좌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제2보좌 고원용 장로로 이루어져있다. 지역 회장단은 제일회장단의 지명으로 선지자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펼쳐지는 모든 교회 사업을 감리하며, 회원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생활하도록 권고와 모범을 주는 우리의 지도자들이다.

Elder William R. Walker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워커 장로가 세상에서 처음 맞이한 날은 1944년 5월 25일로, 캐나다 서부 앨버타가 고향이다. 앨버타는 2,0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후기 성도 개척자 농부들이었다. 워커 장로의 할아버지도 그 개척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그 지역 스테이크 회장이었고 마을의 의사였던 아버지는 감독단으로 봉사했다. 워커 가족은 말 그대로 대가족이다. 아버지는 열두 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열세 남매 중 막내인 어머니와 결혼하여 워커 장로에겐 87명이나 되는 사촌들이 있다. 충실하고 강한 후기 성도 가정에서 자란 워커 장로는 일곱 남매 중 둘째째다.

어릴 때부터 어느 것이나 적극적으로 활동적이었던 워커 장로에게는 여러 가지 취미가 있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야구, 농구 및 육상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또 저는 춤도 좋아했고 몇 번인가 춤 경연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작년에 열린 문화의 밤에서 아름다운 무용 공연을 보며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 학교 시절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했고 댄스 밴드도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교회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가서 연주하곤 했습니다.”

BYU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워커 장로는 여러 회사에서 투자 사업에 관련하여 일했다. 은퇴하기 전까지 바클리 은행에서 투자 펀드 사업의 전세계 총괄 판매 책임자로 일했고 수년간 베네피셜 생명 보험 회사 투자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활발한 사회 활동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도 꾸준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했다. 스무 살이 되어서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아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서 두 차례 감독으로 봉사했다. 1990

년에 일본 도쿄 남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아 다시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그 후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2002년에 칠십인 제2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1년간 북미 중부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한 후, 2003년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지명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5년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성임되었다. 수많은 부름 중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

대학 시절, BYU 학생 와드에서 그의 말해 의하면 “길고 윤기 나는 붉은 머리와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진 워커 자매를 만나 결혼하였고 다섯 명의 자녀와 열네 명 손자를 두었다.

“한국에 와서 훌륭한 한국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분들의 깊은 헌신과 신앙을 느꼈습니다. 저는 위대하신 선지자,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며, 그분이 한국의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Elder David F. Evans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난 에번즈 장로는 1951년 8월 11일 생으로, 두 살 때 캘리포니아 주 L.A로 이사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살면서 부모님은 다섯 명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데리고 바다 나들이를 즐겼고, 그 덕에 어릴 때부터 바다와 모래사장에서 하는 놀이에 익숙하다.

“물이 매우 차가웠지만 바다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집 근처 모래 언덕에 많이 사는 도마뱀 잡기도 좋아했습니다. 좀 더 크면서 수상 스키와 스키, 등산과 낚시를 즐겼고 지금도 야외를 좋아합니다. 현재 제 취미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일들로, 우리는 함께 수상 스키와 스키를 타고 캠핑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에번즈 장로의 삶에 의로운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다. “아버지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봉사했던 어머니를 에번즈 장로는 이렇게 기억한다.

“매우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과 경전을 읽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화를 내셨던 기억이 없습니다. 때로 제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실망하셨는데, 그것은 화를 내시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번즈 자매를 만난 것은 대학교 한 사교 모임이었다. 그 후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일본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까지 9개월 동안 데이트를 했다.

“복음에 충실히 생활하라는 그녀의 격려는 제가 선교 사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편지를 하며 서로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신앙

덕분에 귀환한 후, 당시 우리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봉사하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복음에 충실히 생활하고 성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번즈 장로는 3남 5녀를 두었고, 올 봄에 태어날 아기까지 모두 열 명의 손자들이 있다.

유타 대학에서 지역 보건 교육학을 공부하고 BYU 제이 루벤 클락 법대를 졸업한 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칠십인으로 부름 받을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투자 금융 회사의 공동 경영자를 맡고 있었다. 교회에서 그의 아버지처럼 소년단 대장으로 봉사하기도 했고, 솔트레이크 선교 본부 교사와 스테이크 선교 회장, 집사 정원회 고문,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복음은 참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간증이자 삶이며 사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아시며 우리 각각의 삶에 복음의 축복을 모두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오는 새해에 많은 회원들, 그리고 회원이 아닌 분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누는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lder Ko Won Yong

고원용 장로

한국이 광복을 맞고 두 달쯤 후인 1945년 10월 15일(음)에 고원용 장로가 태어났다. 통영이 고향인 아버지와 부산 태생인 어머니는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네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활동적인 성격인 고원용 장로는 학창 시절에 축구와 농구, 배구 등 큰 공으로 하는 운동은 모두 좋아했고, 산을 타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전국 일주를 세 번이나 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전기공학을 공부할 때는 신문사 활동에 매료되어 공대신문 주간, 서울대학신문 학생 편집장 등을 맡아 대학 시절 대부분을 신문사 일로 보냈다. 그래서 막상 졸업식에서 공학사 학위증을 받을 때는 무척 어색해했다고 한다.

지역 회장단 중 유일한 개종자인 고 장로는 청소년 때 침례를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 끝난 직후 같은 반 친구가 소개를 해서 호기심으로 따라갔는데 회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지 ... 거기에 감동하여 선교사와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고 2개월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때 받았던 친절함을 새로 오시는 회원이나 구도자에게 전해 주고 있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고원용 장로는 청남, 독신 시절에 교회에서 했던 연극, 로드쇼, 민속 무용 등의 활동들은 어디에 내 놓아도 부럽지 않다는 자부심이 있다. 고 장로의 실력은 군에 입대한 후에도 빛을 보았다.

“교회에서 민속 무용을 한 덕분에 군대에 가서 말단 신참인데도 민속 무용 대회 대표로 뽑혀 우리 부대 대표팀을 지도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여 수도 육군 병원에 위문 공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젊은 시절의 하이라이트는 1975년 최초의 한국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을 때 문화의 밤 행사 연출을 맡은 것이다. 고원용 장로는 “이 때의 경험이 한국 교회 헌남 50주년 행사를 치뤄내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열정적인 고 장로에게 교회에서 하는 봉

사 역시 설 새 없었다. 6년 여 동안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고, 2년간 홍콩 지사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후, 1988년부터 지역 대표와 지역 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모든 부름이 다 축복된 기회였지만 가장 감사해하는 부름은 서울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봉사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 스테이크가 처음으로 조직되어 교회 지침이나 원리에 대하여 새로이 배워야 할 것이 많았는데, 집행 서기의 주임무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지침서를 연구하여 스테이크 회장단과 역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군 제대 후, 한국 IBM에 입사하여 28년간 재직한 고 장로는 퇴직 후에 한진 정보 통신 대표 이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은퇴 후에는 교회 부름에만 전념하고 있다. 고원용 장로는 김은희 아내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회원 여러분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간증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하늘에 하얀 입김을 흩뿌리며 두꺼운 책 꾸러미를 안고 가는 아이들. 우리의 보물인 청소년들의 새벽은 항상 세미나리로 시작한다. 무심코 대하는 아침 해는 경전을 읽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예은 자매입니다. 저는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에 다니고 있고, 올 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요일 아침만 빼고 모든 평일 아침 6시 30분에 세미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신약을 배웠는데 두 번째 배우는 거라 이번에 배울 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는 중3인 언니와 저에게 세미나리를 가르치기로 결정하셨고, 그 후로 계속 새벽에 세미나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가르치는 세미나리는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아빠는 재미있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옛날 이야기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평소에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 오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아침마다 무척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서 좋았습니다. 올 해 배운 신약은 두번째 배우는 거라 조금 처음 배울 때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서 비교해서 배울 때 재미있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습관처럼 했던 거라 세미나리하는 것이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고 신앙도 키우고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리 덕분에 고3 생활을 더 수월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제가 고3이 되고 나서 정식으로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받아 아빠를 이어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요즘은 저희 와드 친구들도 같이 합니다. 엄마는 세미나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꼭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셨습니다. 밤 늦게 잠을 자지 않고 뭔가 하고 있을 때 꼭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예은아, 잠 자야지. 그래야 내일 세미나리하지 ...” 정작 엄마는 밤 늦게까지 세미나리 수업을 준비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엄마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 자녀들한테 저렇게 해줄



세미나리를 마치고 나온 구예은(오른쪽) 자매와 동생 구예경(왼쪽) 자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도 그런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미나리는 한마디로 하자면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것은 다 있습니다. 경전 공부도 하고 신앙을 키울 수도 있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경전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찾아보아야겠다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몰론경을 읽으면서 명확한 답이 나온 구절을 찾고 싶었는데 기대했던 구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척 기뻐했던 기억입니다. 힐라맨서 3장 35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후기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표본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저도 그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주 기도하고 겸손하여져서 성결하게 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선교 사업의 시작점 서울 선교부에 가다

한국 지역 헌납 50주년 기념 행사에 눈코 뜰 새 없었던 지난 해를 뒤로 하고 2006년,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며 리아호나는 이 땅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의 네 개 선교부를 방문한다. 2006년 첫 번째로 리아호나와 회원들을 초대할 곳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선교부다.



1960년대 한국 선교부의 모습. 앞줄 왼쪽에서 네번 째 자리에 초대 선교부 회장인 게일 에프 카 회장이 앉아 있다.

한국 최초의 선교부

1962년 7월, 한국 땅에 처음으로 조직된 선교부의 이름은 '한국 선교부'였다. 온 한국 땅의 선교 사업을 한국 선교부가 담당했다. 당시 초창기 한국 교회처럼 젊은 33세의 게일 에프 카 회장이 초대 한국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고, 삼청 지부 자리에 본부를 세웠다. 몇 개월 후 본부는 청운동으로 옮겨졌다. 7월 8일에 휘문 고등학교 강당에서 한국 선교부 첫번째 대회를 열었고, 이어 간증 모임과 노년의 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선교부는 세 개 구역이 있었는데, '서울 서부-중앙 구역'과, '서울 동부-동대문 구역', '부산-대구 구역'이다. 선교부는 두세 개 와드나 지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 팀을 묶어 구역(District)을 정하고, 두세 개 구역을 묶어 지역(Zone)이라 칭한다. 수년 후에 다른 선교부들이 조직되면서 관한 지역의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지금은 서울, 서울 동, 서울 동

대문, 서울 북 스테이크와 강릉 지방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지금 서울 선교부는 5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역은 모두 11개가 있다.

가족 영어 회화의 시작

미국인 선교사가 대부분인 선교부는 영어를 가르치며 구도자를 찾기 시작했다. 영어 회화반은 선교사들이 주민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입으로 듣는 영어가 신기해 교회에 왔다가 더 진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2000년에 서울 선교부는 새로운 선교 사업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바로 '가족 영어 회화'다. 당시 서울 선교부 칼슨 회장은 대부분 어린 아이와 엄마들, 학생들이 참석하는 영어 회화반을 보며 한국의 남성들, 즉 신권을 갖고 감독과 교회를 도울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다 '가족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은 가족을 방문하고, 30분 동안 영어를, 30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며 구도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물론경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가족 메시지를 전했다. 이 방법은 한국에 있는 다른 선교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개종자를 찾는 주요 방법이 되었다.



자매 선교사들이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단지 를 건네 주며 가족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셀러스 서울 선교부 회장



“선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개종자가 되어 계속 활동하고 교회에 남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손잡아야 합니다. 저희 서울 선교부는 2006년에 회원들과 함께 구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는 회원들이 많고 튼튼한 조직을 가진 서울 지역과 비교적 작은 조직들이 넓은 지역에 퍼진 강릉 지방부 지역에서 봉사합니다. 강릉 지방부에 있는 지부들은 아주 작습니다. 넓은 지역에 저활동 회원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부부 선교사들이 간다면 우리 강릉 지방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이 지도자를 도와 저활동 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회원들이 저희 선교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더 많은 동료들이 저희 선교부에 필요합니다.”

특별한 선교사들

체릉남 장로

언뜻 보면 한국인 같은데 이름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몽골에서 온 선교사다. 감기가 걸리면 육개장을 먹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그는 2003년 2월에 한국에 왔고 지금은 서울 스테이크 흥제 와드에서 지역 지도자(Z.L)로 봉사하고 있다. 몽골인이 많이 사는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가 첫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지내며 몽골인 구도자를 가르치고 교회 모임을 통역했다. 지역을 떠나 몽골인 구도자들이 있다면 다른 선교부 지역으로 여행하며 일했고, 열두 명의 몽골인 회원이 체릉남 장로를 만나 개종했다. 올 해 1월에 귀환하는 체릉남 장로의 한국말은 아주 유창하다. 개종한 지 3년 반 정도 된 체릉남 장로는 개종하기 전에 갑자기 한국말을 무척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에서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다.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후에 선교사들을 만나 개종하게 되었고, 그 후 일년 반 뒤에 한국으로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자연이 좋아요. 언덕을 넘고, 산과 숲 사이에 건물이 모여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체릉남 장로와 동반자 플린더스 장로



코우치 장로와 동반자 하퍼 장로

코우치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에서 봉사하고 있는 코우치 장로는 한국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다. 한국에서 봉사한 지 7개월 정도 되는 그는 이제 전도할 때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 억박지르는 아저씨들에게 익숙해졌다. 약 1년 전에 ‘한국 서울 선교부’ 라고 쓰인 부름장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름장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 한국과 관계가 많이 좋지 않을 때라 모두들 걱정했죠. 그렇지만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하게 해 주실거라 믿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우치 장로가 선교 사업을 결심하기 전에 그의 와드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 강남 와드 이영문 형제가 귀환

전 석 달을 코우치 장로의 와드에서 봉사했던 것이다. 그 때 이영문 장로와 함께 친하게 지내며 이 장로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 코우치 형제는 선교 사업을 결심했다. 부름장을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봉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슬퍼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봉사하면서 나라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완전히 극복할 수 없겠지만 저를 통해서 서로 좀 더 이해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 김치 담그기 대회 우승

지난 해 12월 5일 월요일, 부산 롯데 백화점에서 부산 주부클럽이 주최한 ‘외국인 김치 담그기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큰 화제거리는 대회 1, 2, 3등을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휩쓴 것이다. 터키, 이란, 미국 등지에서 온 20여 명 외국인 참가자 중 맛있게 김치를 담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호주에서 온 에킨슨 장로(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가 1등을, 동반자인 클러프 장로가 2등을, 반함 장로(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가 3등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 기사는 부산 지역 TV 방송과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한편, 수상한 김치맛을 궁금해하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많았지만 김치가 한포기 밖에 없어서 선교사들은 조금씩 나누어 구도자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한다.(이유열 기사 제공)



부산 지역 신문에 김치 담그기 대회

소식과 함께 선교사들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조셉 스미스 학술 세미나

“조셉 스미스의 세계-21세기를 위한 아이디어”라는 이름의 학술 세미나가 2005년 12월 9일에 서울 흥인동에 소재한 충무아트홀에서 열렸다. 한국 공보 위원회와 브리검 영 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과 사상,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 종교계와 학계, 사회 민간 단체, 언론계 인사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 150여 명이 함께했다. 약 다섯 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광주 종교 교육원 원장인 임종하 형제가 조셉 스미스의 생과 업적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BYU 교회사 및 교리 교수인 프레드 우즈 형제가 “조셉 스미스의 사상과 가르침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축약된 ‘신앙 개조’와 교회 원리에 대해 발표했다. 한신대학교 및 남서울대학교 강사인 노희정씨는

설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현 사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 후기 성도들의 가족 가치관에 대해 발표했고, BYU 결혼 및 가족 생활학 교수인 테란스 울슨 형제는 가족 선언문을 설명하며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중 가족에 대한 세계를 소개했다. 각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과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며 토론했는데, 외국인 교육 단체인 월드 스튜던트 가든의 에이브 원씨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이 교회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발표자들은 교회 초등학교와 청소년 프로그램, 가정의 밤을 소개했다. 세미나 휴식 시간과 모임을 마친 후에도 이러한 토론은 대화장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고원용 장로는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이제 이 사회는 우리에게 대해 좋은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라며 세미나에 참석한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향, 중앙, 세계 일보 등 국내 우수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과 발표자들. 맨 오른쪽부터 임종하 형제, 고원용 장로, 공보 선교사 판즈워스 자매, 판즈워스 장로, 고원용 장로 뒷 줄에 테란스 울슨 형제, 맨 왼쪽에서 두번째에 프레드 우드 형제가 서 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마산 스테이크**
사천 지부 지부 회장: 도재왕(전임: 강지훈)
-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감독: 김용태(전임: 배상기)
-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감독: 강재성(전임: 권태휘)
- 안양 스테이크**
평촌 와드 감독: 김희영(전임: 최현호)